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경험 조사 보고서

(Focus Groups Interview)

2019.06
Prepared for 국가인권위원회
Prepared by REALMETER

CONTENTS

A	조사개요	03
B	혐오표현 인식	07
C	혐오표현 사용 행태	13
D	혐오표현 증감 전망	25
E	결론 및 요약	30

PART A. 조사 개요

A1. 조사 목적

A2. 조사 설계

A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 목적

본 조사는 2030세대가 느끼는 혐오표현과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인식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음
향후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함

01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파악

- 혐오표현에 대한 이미지
- 혐오표현 사용자가 인식하는 혐오표현 기준
-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02 대상 집단 별 혐오표현 및 사용 행태

- 대상자별 혐오표현
- 혐오표현 정당화 논리

03 혐오표현 증감 전망 및 대책

- 혐오표현의 이해
-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 설계

조사 방법

- 표적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 2019년 5월1일 ~ 5월7일 (그룹당 120분)

샘플 크기

- 총 4그룹 (그룹당 7~8명)

조사 대상*

구 분	1Gr.	2Gr.	3Gr.	4Gr.
표본 구성	30대 여성 직장인	30대 남성 직장인	20대 여성 대학생	20대 남성 대학생
명수	7명	7명	7명	8명
대상자 조건	최근 6개월 內 혐오표현 사용자			

*조사 대상은 '2019년 한국사회혐오차별국민인식조사(리얼미터)'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표현 사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20~30대를 선정함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방법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참가자들 사이의 개방된 토론을 장려할 수 있게 격식 없는 방식으로 구성된 일회성 face-to-face 모임으로 특정 사회 분파를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참가자를 깊게 이해하고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그룹 당 6~1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Zaltman J 등, 2003)
- 이에 본 연구에서는 Zaltman J 등(2003)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룹당 7~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정조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화로 조사 목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자에게만 인터뷰 참여를 의뢰하였다

진행 방법

- 본 조사는 각 대상자 그룹별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그룹별 집단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 4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포커스 그룹 조사는 2019년 5월 1일~7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인터뷰를 실시 하기에 앞서 본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한 뒤, 조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각 그룹당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 내외 이었다. FGI는 조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 진행자가 진행하였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문 진행자로 하여금 사전에 가이드라인에 대해 충분이 숙지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각 그룹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전문 진행자와 함께 가이드라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였고, 종료 직전에 추가 조사 내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 후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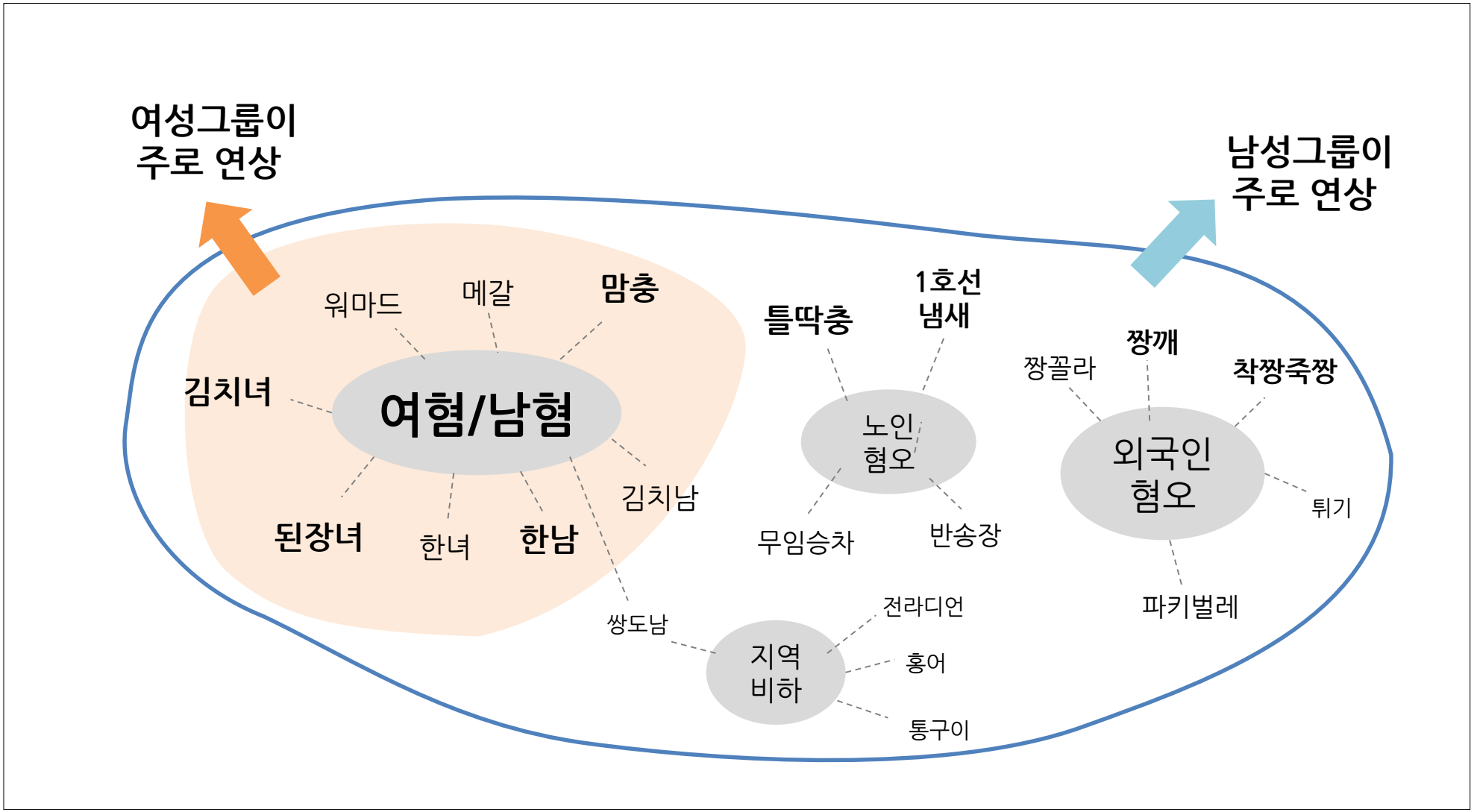
진행 방법

- 각 대상자 그룹별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이후, 연구자들은 그룹별로 진행되었던 FGI 음성 파일을 토대로 녹취록(script)을 작성하였다. 수집된 녹취록과 디브리핑(debriefing) 노트, 그리고 회의를 통하여 좀 더 심층적이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FGI 조사 결과에 따른 의미, 객관성, 이론성, 근거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담당 연구자가 녹취록과 음성파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각 참석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해당 집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꼽아 코딩을 한 후 각 그룹별 인사이트(insight)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하위주제로 구분하여, 주제에 따라 각 그룹별로 정리하였다.

PART B. 혐오표현 인식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혐오표현 (Top of Mind)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혐오표현으로 여성은 성별에 대한 혐오를 주로 언급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성별, 이주민, 지역 등 대상이 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남**



혐오표현 사용자가 인식하는 혐오표현 기준

혐오표현의 기준은 '특정 집단 비하', '수신자가 불쾌하게 느끼는 표현', '이유 없는 비하'로 인식함

다만, 사실에 근거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혐오표현이 아니라 비난으로 인식

1 수신자가 들었을 때 불쾌하게 느끼는 표현 (수신자가 없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인식)

"상대방이 들었을 때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표현" (20대 남성 대학생)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해요" (20대 여성 대학생)

"병신도 장애인에게 쓰지는 않는 한 혐오표현이라기 보다는 그냥 시발, 존나 처럼 쓰이는 욕인 거죠" (20대 남성 대학생)

2 특정 집단 비하

"다수보다 소수를 지칭해서 비하하는 말" (30대 남성 직장인)

"그룹이나 대상을 특정화하여 비난하는 것"(20대 남성 대학생)

"그냥 학생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급식충이라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것" (20대 여성 대학생)

3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유 없는 비하 → 사실에 근거할 경우 혐오표현이 아니라 "비난"으로 인식

"제3자가 들었을 때 타당한 이유 없이 하는 표현" (20대 남성 대학생)

"행위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비하하는 것" (30대 남성 직장인)

"저급한 표현이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난이라고 생각되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이 하는 표현은 혐오표현이라고 생각" (20대 남성 대학생)

쉽게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 (1/2)

전반적으로 혐오표현 사용이 많은 대상은 여성 > 페미니스트 > 성소수자 > 남성 > 특정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인, 이주민, 노인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은 적다고 인식

쉽게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 (2/2)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은 20대 남성 그룹을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가장 많다고 응답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 사용’은 여성 그룹에서는 적다고 인식한 반면, 남성 그룹에서는 많다고 인식

* 다만, 20대 남성 대학생은 여성에 대한 혐오가 적은 편이라고 응답했으나, 조사 대상 그룹 중 여성 혐오표현에 대한 노출이 많은 편이었음

인식상 혐오표현을 들어서는 안되는 집단

모든 그룹에서 가장 혐오표현을 들어서는 안되는 대상은 '장애인'이라고 응답했으며, '페미니스트'는 혐오표현을 들어서는 안되는 대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남

PART C. 혐오표현 사용 행태

혐오표현 사용 채널 변화

사회적 지탄으로 인해 혐오표현 사용채널은 점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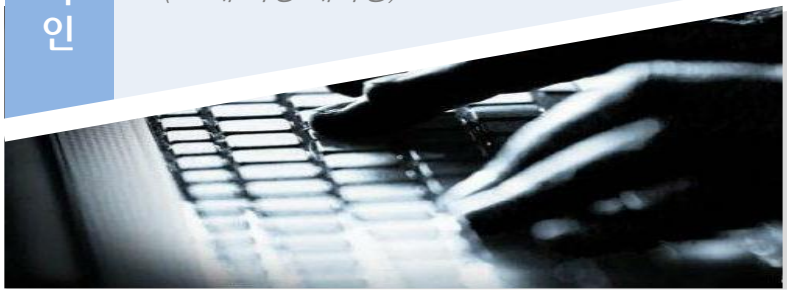
사회적 지탄이 두려워 혐오표현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사용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는 경향을 보임. 다만, 학교 선배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고용인들, 직장 임원진 등 상위 권력자들의 사용은 좀 더 자유로운 것으로 판단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상 혐오표현 증가

오프라인

"회사에서 윗 분들이 특정 지역 혐오 발언을 많이해요"
(30대 여성 직장인)

"학교 선배들이 페미는 상대 안 한다고 해요"
(20대 여성 대학생)



*"**회사에서** 실제로 혐오표현 쓰면 **큰일나요**" (30대 남성 직장인)*

*"혐오표현은 **음성적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죠"*
(30대 남성 직장인)

"회사에서 직접 혐오표현을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30대 여성 직장인)

온라인

혐오표현 사용자 및 사용 이유 ①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1/2)

여성의 행위를 왜곡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열등한 집단으로 만드는 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자주 쓰이는 표현 ▪ **김치녀, 된장녀, 맘충, 김여사**

- 꽃뱀 (잘못 걸리면 남자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음)
- 한녀 부들부들/한녀 쯧쯧
  (한국 여성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인식해 비하하는 말)
- 여자가 돈을 많이 벌면 남자가 일을 안 한다
- 여자가 너무 드세다
- 가정일은 당연히 여자가 할 일
- 여자가 유학을 다녀오면 결혼 정보 회사에서 등급이 떨어진다
- 외국인과 데이트하는 여성을 문란하다
- 여자애들은 대가리 비었다
- 여자들은 군대를 안 다녀와서 회사 들어가서도 위계질서를 모른다

“대부분의 혐오표현이 여성에게 부정적 이미지 부여하여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표현”

혐오표현 사용자 및 사용 이유 ①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2/2)

2030대 남성은 자신을 "제도적으로 소외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충분한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 → 혜택을 'Zero Sum Game'으로 인식하여 여성 혜택 만큼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함

여성 혐오표현 사용을 정당화 하는 논리 (2030대 남성)

여성에 대한 지원이 생기면 그 만큼
남성에 대한 지원이 없어진다고 인식

"Zero Sum Game으로 인식"

남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부재 (예: 군가산점)

+

여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증가 (예: 여성 우대 채용)

+

자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여성들이 남성의 기득권을 가져오려고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남성 탓으로 돌려서 군 가산점 같은 것은 없애고 여성 우대 정책이 나오도록 유도**해요" (30대 남성 직장인)*

*"남자화장실이 되게 큰데도 소변기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남자화장실에 있는 소변기와 대변기의 수는 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보다 적어야 한대요. **무조건 여성에 맞추는 거죠** " (20대 남성 직장인)*

*"**앞 세대는 남성이 충분히 가부장적인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여권이 올라가면서 지금 20-30대 남성은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과거에 그랬다고 하면서 여성 우대 정책만 있어요**. 취업만 해도 여성 채용 혜택을 줘서 여성이 더 쉽게 취업 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30대 남성 직장인)*

*"곰탕집 사건만 봐도 그래요. 남자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손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성추행범 되지 않으려면 이제 만세 자세하고 타야** 해요" (30대 남성 직장인)*

[참고] 2030세 남성이 인식하는 여성 우대 혜택

여성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가짜 뉴스가 여성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 직장인은 야근을 안하면서 임금 격차를 줄여 달라고 요구함	*"여자들이 임금 격차 줄여 달라고 한데요. 근데 보통 여자는 야근을 안 하니까 야근하는 남자가 돈을 더 받는데 왜 불만인 건지…"*
경찰/소방관 선발 체력 검증 시 남성보다 여성 기준 낮음	*"소방관이나 경찰은 몸을 쓰는게 주된 일인데 체력을 검증할 때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두고 측정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여성 고용 할당제/여성 창업 지원	*"남자 중에 공대생이 많아서 남자가 취업이 더 잘되는 걸가지고 여성이 취업이 안된다고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해요"*
여성은 생리 휴가도 있음	*"생리휴가는 꼭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작해요. 정말 생리휴가를 쓰는 건지.."*
성매매 종사 여성 지원금	*"인천에서 창녀들에게 돈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화장실이 더 많음	*"휴게소에 가도 여자 화장실은 4개인데, 남자 화장실은 2개 밖에 안되요"*

혐오표현 사용자 및 사용 이유 ② 남성에 대한 혐오

여성의 경우, 여성을 지칭하는 혐오표현보다 남성을 지칭하는 혐오표현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이 먼저 여성을 상대로 혐오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반응

남성에 대한 혐오

- **한남(충), 일베충**
- **자격지심, 맨저**(남성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 **재기해라(**남성연대 대표였던 성재기의 사망 사건을 빗대어 '죽어라'를 의미**)**
- **육구 :** 남성 성기 사이즈(6.9cm)를 비하하는 표현
- **자지배** (기지배의 반대말)

남성을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표현 多

남성 혐오표현 사용을 정당화 하는 논리

01 남성의 여성 혐오에 대한 반발심으로 사용

"남성이 먼저 여성에 대해 심하게 댓글을 다닌까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말해주는 거죠" (30대 여성 직장인)

"한녀, 스시녀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것에 미러링으로 한남이라고 해 줬을 뿐인데 자기네들에게 대상화가 바뀌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죠" (20대 여성 대학생)

02 남성에게 유리한 사회 구조에 대한 반발심 → 위 세대를 통해 간접 경험

"저희 언니만 봐도 여학생이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취업은 남자가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여성 대학생)

"82년생 김지영 책이100% 저랑 맞지 않거든요, 그래도 거기 나오는 70-80%는 봤거나 경험한 것이에요. 거기 보면 얼마나 여자 불평등을 받아오는지 알 수 있어요" (20대 여성 대학생)

"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러세요. 남자들은 식탁에서 먹고, 저는 작은 상에서 밥 먹거든요" (20대 여성 대학생)

혐오표현 사용자 및 사용 이유 ③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두드러짐
남성은 성소수자에 대해 내재화 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 똥꼬충 후장, 공격수비, 샤워기
- 토 쏠린다, 더럽다
- 에이즈를 옮긴다
- 정신병
- 기독교에서는 치료해야 할 존재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은 편 (응답자 일부는 팩트로 인식)

"병을 가진 환자(병리화)로 만드는 표현 多"

성소수자 혐오표현 사용을 정당화 하는 논리

01 성소수자들의 시위 등 행위 자체를 알게 되는 것이 나에게 피해

"퀴어축제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저한테 피해인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것을 봤을 때 인상 찌푸리고 그러면 정신적 피해잖아요" (30대 남성 직장인)

02 향후 나의 자녀가 몰라도 될 내용을 알게 될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식이 있을 경우에 엄마, 아빠, 저게 뭐하는거야? 하면 내 자식이 몰라도 되는 건데 알게 되는 것도 피해라고 생각해요. 동성애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으니까" (30대 남성 직장인)

03 세금이 에이즈 치료에 쓰이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줌

"에이즈 치료하는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거죠, 니네가 좋아서 하고 내가 왜 내 세금으로 고쳐줘야 하냐?" (30대 여성 직장인)

04 성소수자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인식

"2030 남성들이 성소수자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20대 여성 직장인)

[참고] 혐오표현 사용자 및 사용 이유 ③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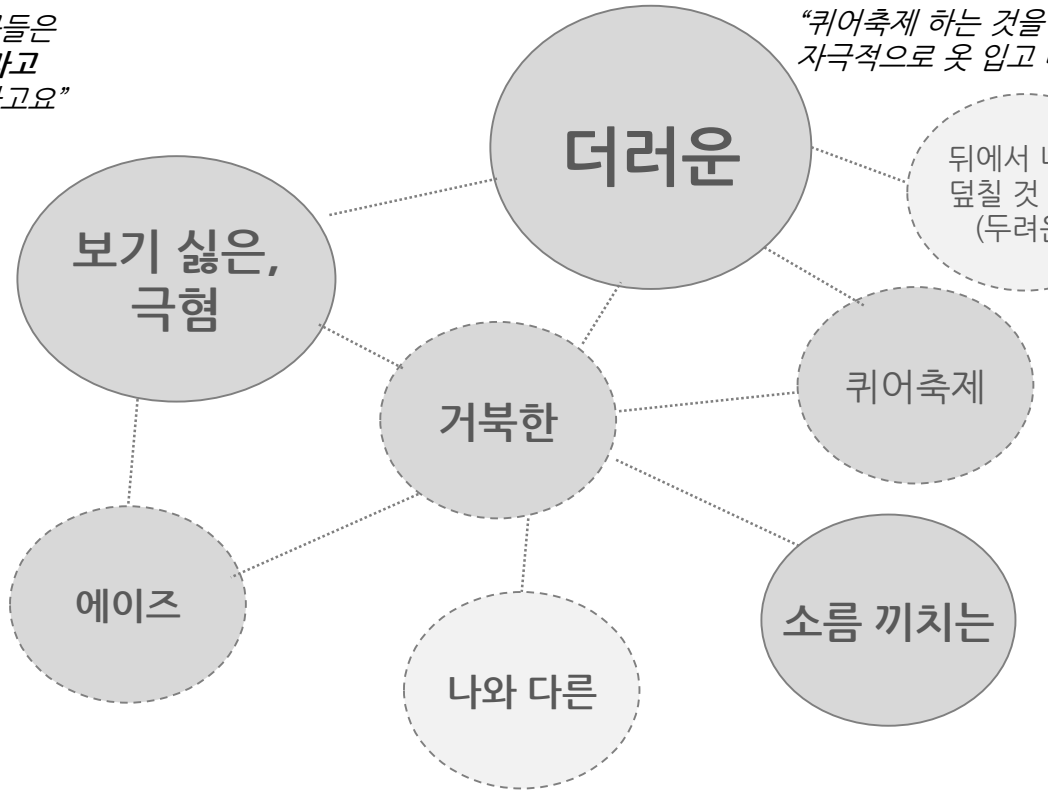
남성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불쾌하고 거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의 경우 "에이즈"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남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여자들은 동성애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데 남자친구들은 **남자끼리 하면 죽여 버릴 거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극혐** 하더라고요" (30대 여성 직장인)*

"생각만해도 더러워요, 너무 싫어요" (20대 남성 대학생)

"퀴어축제 하는 것을 봤는데 옷도 이상하게 입고 자극적으로 옷 입고 더러워요" (20대 남성 대학생)



"친한 형이 이성애자인데 게이인 친구가 일방적으로 좋다고 집 앞까지 따라오고" (30대 남성 직장인)

"에이즈 걸리는 것이 큰 것 같아요. 진짜 재수없으면 걸릴 수 있으니깐" (30대 여성 직장인)

"게이를 생각하면 그냥 소름이 끼쳐요. 너무 싫어요" (20대 남성 대학생)

혐오표현 사용자 및 사용 이유 ④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은 정치인, 장년층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 2030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반응임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표현

- **전라도 홍어, 전라디언,**
- **통구이**(대구 지하철 사건을 연결하여 대구 비하)
- **쌍도남** (경상도 남자 비하하는 단어로,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무시하는 남성을 의미함)
- **일베는 경상도 출신**

“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or 재미로 사용하는 혐오표현 多** ”

특정지역 혐오표현 사용자 (예상)

참석한 2030대는 공통적으로 지역에 대한 혐오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반응

“정치인들이나 쓰지 저희 또래는 안 써요” (공통)

01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30대 여성 직장인)

“지역 혐오표현을 위해 서로 연대하려는 것” (30대 남성 직장인)

02 일간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가 커뮤니티 내에서 흥미를 끌기 위해 사용 (재난에 대한 혐오 多)

“일베 사이트에서 10대가 관심 받고 싶어서 대구보고 통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20대 남성 대학생)

03 정치권의 영향을 받은 연령이 높은 장년층

“정치인들 말에 영향을 받은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0대 여성 대학새)

노인 혐오 이유는 대중 교통에서의 비매너, 태극기 부대 등을 통한 노인의 부정적 경험과 대접 받고자 하는 노인들의 태도로 나타남 → 노인 혐오는 노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응

노인에 대한 혐오표현

- **틀딱, 무임승차**
- **등산충**(노인이 등산하는 것을 비하하는 말)
- **늙으면 집에나 있지 왜 기어나와, 늙으면 죽어야지 등 발언**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표현 多

노인 혐오표현 사용을 정당화 하는 논리

01 외부에서 만나는 노인의 행동이 나에게 피해를 줬음

*"저는 지하철 줄 서있을 때 **질서 무시하는 노인들** 보면 혐오가 생겨요" (30대 여성 직장인)*

*"**스피커 틀어놓고 밖에서 시끄럽고, 그런거 보면 없던 혐오가 생겨요**" (20대 여성 대학생)*

"고등학교 학생이 버스 좌석에 앉아서 잠이 들었는데 노인분이 오셔서 머리를 때리면서 왜 자리 안 비켜주고 자고 있냐고 해요" (20대 여성 직장인)

"평일에 1호선 타면 노인들이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무임승차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등산이 힘든데 도봉산 그런 곳도 힘든데 지하철도 공짜로 타시고, 등산 갔다가 막걸리 드시고, 자리가 많은데도 또 뛰어가서 앉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힘들게 일하러 가는데 돈 내고 타는데" (30대 남성 직장인)

"제가 다리 다쳤을 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랬더니 젊은 놈이 왜 타냐고, 다리 다친 거 안보이시냐고 했더니 그래도 에스컬레이터나 걸어가라고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30대 남성 직장인)

혐오표현 사용자 및 사용 이유 ⑥ 이주민에 대한 혐오

외국인 혐오 이유는 세금 낭비, 이주민 범죄로 발생에 대한 뉴스가 많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나타남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

[중국 이민자]
- 짱꼴라, 짱깨
- 대림동
- 범죄자

[이슬람/ 예멘 난민]
- 개슬람
- 파키벌레

"범죄자,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표현 多"

이주민 혐오표현 사용을 정당화 하는 논리

01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집단

(중국인-폭력,성폭행/ 이슬람- 폭력, 성폭행, 테러)

"중국인들 범죄가 많아서 불안해요" (20대 여성직장인)

02 우리나라에 살면서 나에게 피해를 줌
(세금 혜택, 내가 안전하게 살 권리 등)

"저보다 좋은 휴대폰 쓰는 난민에게 제가 낸 세금을 쓰는 꼴은 못봐요" (30대 남성 직장인)

"원래 우리나라가 사용해야할 존인데 한국사람들이 못 들어갈 존을 만들었자나요. 그것도 어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내준거잖아요, 뺏긴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것 자체가 왜 우리가 도와줘야하지?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못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걸 도와줘야하지? (30대 남성 직장인)

2030대 남녀 모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표현은 자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 중고등학교 때 다문화에 대한 교육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우호적

다만, 부정적인 차별 생각은 가지고 있는 양상을 보임 → "못 사는 나라에서 신부를 사서 데리고 오는 모습이 TV에 나오니까"

혐오표현 사용자 및 사용 이유 ⑦ 장애인에 대한 혐오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쓰는 사람은 장애인 배려에 대한 개념이 자리잡지 못한 어린 학생일 것이라고 인식함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

- **병신, 애자, 다운증후군,**
- **병신샷**(술자리에서 하는 게임의 종류)

대상 앞에서 하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순 가벼운 욕설로 인식 多)

"병신도 장애인에게 쓰지는 않는 한 혐오표현이라기 보다는 그냥 시발, 존나 처럼 쓰이는 욕인 거죠" (20대 남성 대학생)

"병신=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바보 같은 인간이라는 지칭으로 아무 생각없이 쓰는 것 같아요" (30대 여성 직장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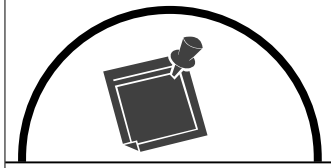
- **장애인은 누구나 속할 수 있는 집단, 보호해야 할 약자로 인식 (가장 혐오표현을 들어서는 안되는 대상)**

  〈이유〉
  - 본인의 의지로 장애를 얻은 것이 아님
  -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음
  - 장애인 혐오 발언 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음 *"개념 없는 놈들만 해요"*

- **이는 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 배워온 장애인 차별 교육의 영향으로 판단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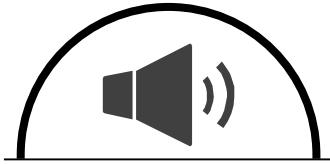
PART D. 혐오표현 사용 증감 전망

타 유형의 혐오표현 대비, 고정관념 유형의 혐오표현을 FACT로 받아들여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임



고정관념 유형

"여자는 예쁘면 다 돼" → "이건 칭찬 아니에요?"(2030 남성)	FACT로 인식 (특히 남성)
"동성애자면 정신병원 가야하는 거 아니야?"	혐오로 인식
"중국 애들은 여기서 사람 죽이고 자기 나라로 가면 끝이라 살인자도 많아"	FACT로 인식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	FACT로 인식
"장애인은 진짜 불쌍하지"	FACT로 인식



선동 유형

"장애인이 있는 학교에 우리 아이를 내몰 수 없다"	혐오로 인식
"예멘인은 강간범이고 테러리스트, 제주도에서 쫓아 내라"	혐오로 인식
"동성애는 창조질서의 파괴, 사라져야 할 것"	혐오로 인식

멸시 유형

"너네 나라로 가, 이 껌둥아"	혐오로 인식
"너 애자냐? 장애자 ㅋㅋ" ▶ 일상 용어, 대명사로 인식	욕으로 인식
"완전 맘충이구만"	혐오로 인식
"똥꼬충"	혐오로 인식
"무슨 커피를 이렇게 비싼 걸 먹어, 너 완전 된장녀구나"	혐오로 인식

혐오표현 사용 증감 전망

향후 혐오표현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은 남녀, 노인, 이주민 등으로 나타남
그리고 "빈부 격차에 따른 혐오표현"이 앞으로 심해질 것이라는 반응

빈부 격차에 따른 혐오표현

- 빈부 격차에 따른 혐오표현이 점점 만연해 지고 있는 경향을 볼 때 향후에는 빈부 격차에 따른 혐오표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예: 휴거빌거. 휴먼시아거지, 빌라거지)

"지금 슬슬 생기는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표현이거든요. 양극화 되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30대 여성직장인)

현재 수준보다 **증가** ← → 현재 수준보다 **감소**

남녀간 혐오표현

- 여권이 신장 되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증가할 것 같음 (여성)
-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이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반감이 증가할 것 같음 (남성)

노인

- 노인이 많아지고 부양이 어려워 지면서 세대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이주민 (중국인, 이슬람 난민 등)

-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나라에서 외국인들 다 받아주고 있고 내가 낸 세금이 계속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 혐오는 증가할 것 같아요" (30대 남성 직장인)

특정지역

- 젊은 세대들은 지역 혐오가 거의 없기 때문
- 현재 정치인, 나이 많은 세대만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장애인

- 학교 교육 등으로 규범적으로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됨

혐오표현 제재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는 응답자 전원이 반대했으며, 교육과 TV 등 대중매체 속에 나타난 왜곡된 시각 개선 등을 통한 혐오표현 상용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응답함

표현의 자유가 중요 → 법적 제재 반대	VS.	형사적 제재 찬성
응답자 전원		없음

이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

"각양각색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다 법으로 제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0대 남성 대학생)

"퀴어축제를 하는 사람도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남이 나를 반대하는게 싫으면 집에서 나오지 말아야죠" (20대 여성 대학생)

→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당사간이 해결해야 함 (개인이 형사법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만 가능)

혐오표현 방지 대책

01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장애인 처럼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30대 남성 직장인)

02 기존 TV, 신문 등을 통한 왜곡된 시각 개선

"그냥 이주민이 아니라 예멘인은 여자에게 강간하고 아이들에게 그런게 쉬운 나라다, 그런 문화에서 자란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 그때 계속 보도를 했거든요." (30대 남성 직장인)

혐오 이유별 혐오 대상 _ 소속 집단 결속 강화 vs. 내가 입을 피해가 두려워 하는 혐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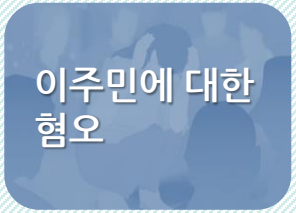
소속 집단의 연대 강화로 인한 혐오 보다는
내가 입을 피해가 두려워 하는 혐오표현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소속 집단의 연대 강화로 활용하는 혐오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여성을 혐오하면서 자기들끼리 끈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30대 남성 직장인)

"성소수자를 비하하면서 비하하는 사람들끼리 결속"
(30대 남성 직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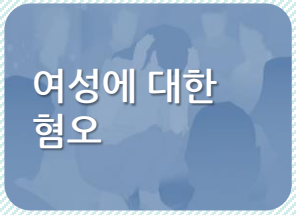
내가 입을 피해가 두려워 하는 혐오표현



공포심/ 두려움을 느끼는 혐오

"조선족이 무서워요. 저한테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고 생각" (20대 여성 대학생)

"지나가다가 칼을 맞을 수도 있고" (30대 남성 직장인)



나에게 위축감의 주는 혐오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있고, 제 친구도 고등학생 때 당한적이 있거든요. 나도 저런걸 당할 수 있겠다. 성범죄자 알리미 날아오면 무섭고 그래요"(20대 여성 대학생)

나에게 위축감의 주는 혐오

"지하철에서 잘못 하다가는 내가 성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고.." (20대 남성 직장인)

PART E. 요약 및 결론

혐오표현 사용의 악순환 구조 및 대책

가짜뉴스를 FACT로 인식해 이를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을 생성, 수집, 확산되고 있음

→이들의 혐오표현 방지를 위해서는 가짜 뉴스 방지, 교육 등의 대책이 필요함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FACT 근거의 비난 = 혐오표현이 아닌 비난

FACT 근거의 비난은 혐오표현이 아닌 정당한 비난으로 인식

악순환 구조

- 서로에 대한 혐오 내용 탐색 / 가짜 뉴스 생성
- 발화자와 수신자 그룹간의 갈등 심화
- 혐오표현 사용 대상자와의 갈등 생성
  "여자연예인이 남자연예인들 터치하는 것은 웃으면서 넘어가고 반대면 난리가 날 일"
- 혐오표현 사용 증가
- **거리낌 없는 혐오표현 사용 (정당한 비난으로 인식)**
- 혐오 대상자 관련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적극 탐색
- FACT로 인식
- **혐오 대상자 관련 가짜 뉴스 / 고정관념 획득**
  "서울시에서 공중화장실 몰카 찾았는데 0건이었데요"

혐오 대상자 관련 다양한 가짜 뉴스로 정확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End of Documents